

www.eai.or.kr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The Military Coup and Future of Democracy in Myanmar

제2세션.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원방안

Session II. Challenges of Myanmar's Democratic
Transition and Possible Way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serve Democracy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 토론회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제2세션.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원방안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 토론회

웨 노에 흐닌 쏘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 리더



1.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의 구조적 문제점

- 연방제에 의거한 민주주의 국가는 가능할 것인가?

현 쿠데타 상황에서 만들어진 CRPH 의 공식적인 정부 방향은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연방제에 의거한 진정한 민주주의다. 1947 년 영국으로부터 미얀마가 독립을 선언하고 아웅산 장군이 소수민족들과 어렵게 이끌어 낸 팡롱협정(Panglong Agreement)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1962 년 네윈 집권 이후 힘을 거의 잃은 소수민족 자치를 보장한 연방제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60 여년 가까이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버마족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 졌는데 이 소수민족 문제는 집권세력, 특히 군부의 정치적 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쿠데타 이전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의 로힝야 문제에 대한 대처는 세계로부터 미얀마가 인권탄압국가로 지탄받는 사건이 되었다. 또한 미얀마내 소수 민족들에게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반감을 사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쿠데타 이후 ‘역지사지’가 되고 있는 것은 작은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한다. 로힝야 문제에 대해 시위에 참여한 젊은 버마족으로부터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선무인 군부독재 청산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가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쿠데타 상황이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이 소수민족 자치를 단순히 내줄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불안요소로 남으리라고 짐작된다. 한국의 경우 같은 민족인 데도 지역갈등의 문제가 수 십년 간 계속되는데 하물며 수 십년 간 분열되어 서로 싸워온 다른 민족이 하나의 국가 안에서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 저항시민의 무장단체 합류는 최선의 선택인가?

군부의 반인륜적 진압 아래 500 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소수민족인 라카인 무장세력 AA, 카친족 무장세력 KIA, 카렌족 무장세력 KNU 가 시민보호를 위해 CRPH 에 합류했다. 기타 군소 무장세력들도 속속 합류를 하고 있다. 그동안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가족, 동료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젊은 저항시민세력들이 그들과 합류해 지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미얀마

국민들은 두 달 넘게 군부에 저항하면서 UN 의 시민보호의무(R2P)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어떤 행동도, 조치도 없는 것에 절망했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시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소수민족 저항세력에 합류하고 그동안 벌였던 평화운동이 무장 지하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더 많은 희생을 부를 것이고 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대로 타협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잔인한 일을 벌여왔던 군부에 대한 처벌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만 끝날 것인데, 이를 저항 시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도 무장하는 데에 있어 큰 이유가 되고 있다.

- 완전한 군부청산은 이루어 질 것인가?

물론 이는 시민저항군의 승리 이후의 이야기다. 지금 상황에서 내전으로의 확전을 하지 않고 쿠데타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정치적 타협’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정치적 타협은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50 년이 넘는 통치를 통해 미얀마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뿌리깊은 그 들만의 카르텔은 미얀마를 독점하고 있다. 그 들에 대한 완전한 제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주장하고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거대한 악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지 정치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역할과 NLD 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지 등 그 방법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

2.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시민 보호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 군부가 통치하는,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한 미얀마 주변 나라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난 3 월 27 일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고 인근 나라로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가 있었다. 미얀마 주변 국가들은 모두 이번 군부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군부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한 정통성이 없는 정부들이다. 과거 태국과 같은 주변국의 국민들이 반정부 투쟁을 하고 미얀마 정부에 지지와 연대를 요구했을 때 미얀마 정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미얀마 시민 조직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없다. 아세안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선언적인 상호간 협력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정치 외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아세안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다. 미얀마는 중국 다음으로 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가장 높다. 태국이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 동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아세안에서의 위치와 위상을 생각하면 그 아쉬움은 더욱 크다. 밀크티 동맹이란 이름으로 태국, 타이완, 홍콩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민주주의 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운동이 주변 나라들로 확대되며 힘을 키워가는 것은 민간교류의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세안의 각 정부 차원의 협력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3. 한국과 미얀마 관계에서 본 미얀마 민주주의 지원 가능성,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한국의 반응

-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의 신 남방 정책은 유지될 것인가?

2010 년 시장 개방 이후 미얀마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왔고 세계 시장과의 교류/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쿠데타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과거와 같은 가난한 폐쇄 국가의 길로 다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 실질적으로는 군부가 통치한 2010-2014 년의 5 년간의 유사민주정부와 군부와 문민정부의 불안한 동거 5 년, 도합 10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얀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세계는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다음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미얀마를 언급했으며 대한민국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미얀마를 눈 여겨 본 것으로 안다. 그런 가운데 많은 투자 및 유치가 있었고 민간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던 시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인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군부에 대한 제재를 주저하고 미온적이었던 것에 반해 한국은 쿠데타에 대한 거부표명으로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인 정부안을 채택하고 국민 또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인들은 쿠데타 상황이 별 진전 없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지금의 쿠데타가 어떻게 흐를지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군부의 승리로 끝날 경우,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의 승리로 끝났을 때 역시 경제력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얇은 미얀마에게 정부 차원, 민간 차원의 도움은 절실할 것이다.

- 군부와 연결된 한국기업의 사업중단 촉구

포스코인터내셔널(전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2004 년부터 미얀마 슈웨(Shwe) 가스 개발 사업을 해왔다. MOGE 는 모두가 알듯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중국 윈난성까지 771 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미얀마 시민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소유 기업인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 포스코강관(C&C)을 합자회사로 만들어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소수민족 학살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호텔은 양곤의 군 소유 땅에 5성급 호텔 사업도 벌이고 있다. 군부가 미얀마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기업의 투자는 이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미얀마 시민들 또한 이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 수단이 없는 미얀마 시민들로서는 압박의 수단으로 군부와 연결된 사업을 중단시킴으로써 그들의 자금줄을 끊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 기업의 사업 중단은 분명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는 과연 미얀마에게 이로울 것인가?

오히려 중국과의 유착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다. 이 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듯하다.

4. 미얀마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한국시민사회의 도움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조직화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기민한 활동과 도움은 놀라움 그 자체다. 나는 지금 한국시민단체와 미얀마와의 연계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얀마에는 조직화된 시민단체가 거의 없다는 것은 과언이 아님을 느꼈다. 겨우 알고 있는 지인들 몇몇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그들이 아는 지인을 다른 지인과 연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번 쿠데타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조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대 정부, 정부 대 민간 보다는 민간 대 민간, 시민단체나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법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미얀마 쪽은 조직화된 단체가 거의 없기에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현재에는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그로 기인한 피로감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은가?

5. 쿠데타 종식의 결과로써 이루어져야 할 불교 교단개혁

- 권위적인 미얀마 불교 교단의 개혁의 방법은?

50 년 넘는 세월 동안 만들어진 군부의 권위의식은 미얀마 불교 교단에도 그대로 옮겨졌다. 미얀마의 절대다수가 불교신자인 상황에서 불교지도자들은 마치 상왕과도 같은 위세를 갖추었다. 군부와 불교지도자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공생관계로 오늘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노승려들의 행태는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로 서의 면모는 전혀 볼 수 없는, 군부와 함께 퇴출시켜야 할 적폐로 보인다. 로힝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이를 민족 문제로 정치화 시키며 버마족을 자극하고 부추기며 사태를 더 키웠다. 또한 많은 국민은 미얀마 불교신자들이 보시한 가늠할 수도 없는 막대한 보시금이 군부와 일부 종단승려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스님들의 이런 행태에 도 불구하고, 현재 쿠데타 상황에도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로 인해 시민들은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낼 수 없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저항 시민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불교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중, 장년층은 여전히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침묵한다. 군부독재만큼 청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미얀마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뤄내야 할 것인가?

- 현실에 눈 뜬 Z세대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1995 년 이후 출생한 이들을 Z 세대라 칭하는데 Z 세대는 이번 거리투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희생자 또한 많은 세대이다. (3 월 30 일자) 전체 희생자 533 명 중 19 세~25 세의 Z 세대 희생자가 40%를 넘을 정도다. 폐쇄 국가였던 미얀마는 2010 년에 시장을 개방했다. 2015 년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이 흐름 속에서 Z 세대는

시장경제의 자유와 비록 꺾이기뿐일지라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체제 속에서 자랐다. 미얀마의 미래를 이끌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불의에 맞서 온몸을 던지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낀다. 그러나 이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 또한 쿠데타 이후 상황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 **저자:** **웨 노에 흐닌 쏘_**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코트라 미얀마 상무부 공무원 연수, KDI 국제개발협력(MDI)공동연구 역량강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미얀마 고위급공무원 연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어-미얀마어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현지어 교육 강사와 아시안허브 미얀마어 집필 및 강사로 재직하였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 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 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 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 호 (을지로 4 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